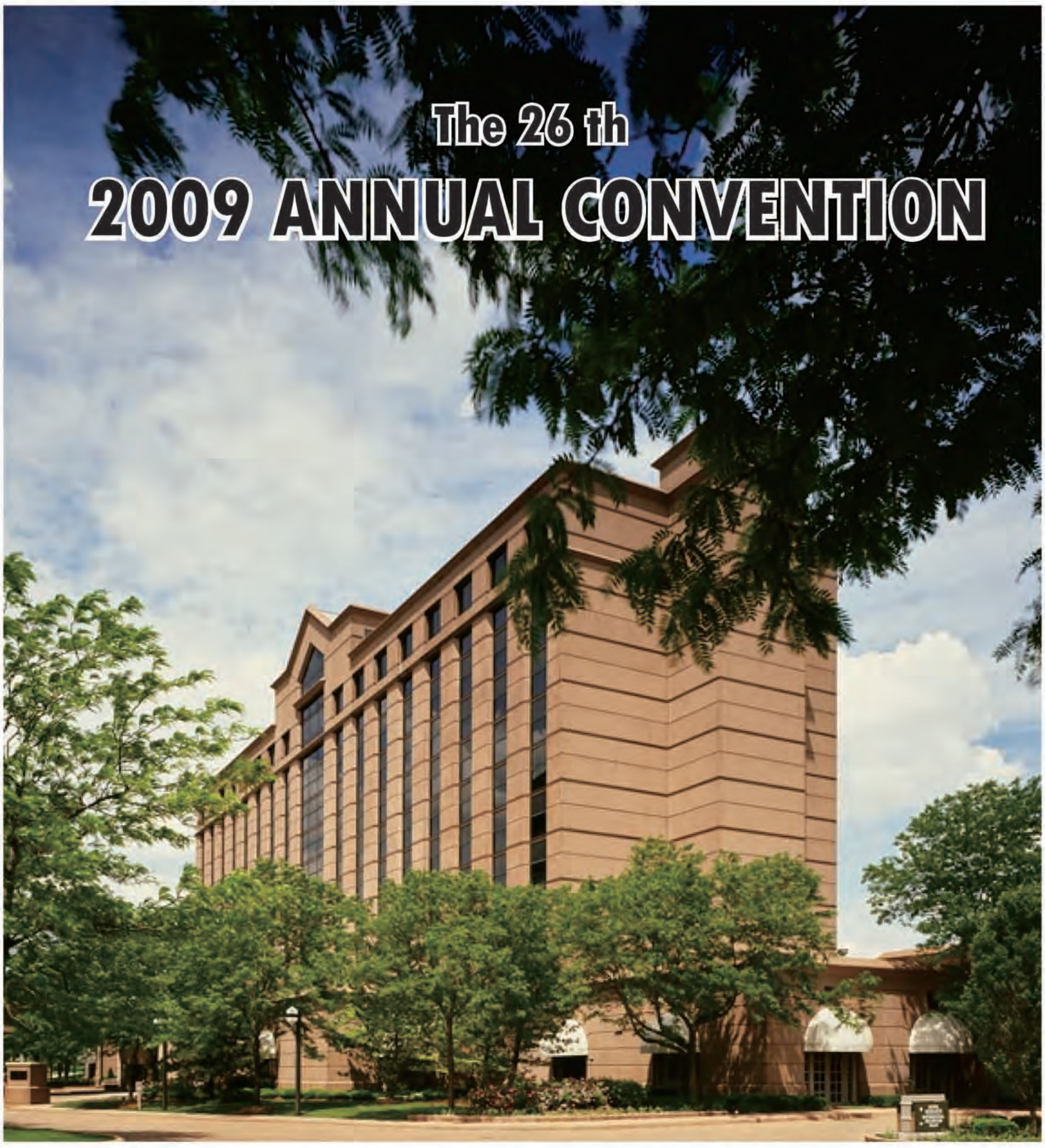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09년 1월 15일 발행 | 서울大學校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 제36권 1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尹 孝 允 편집위원: 徐 亮 盧 在 煜 李 惟 贊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편집인: 金 炳 晢 徐 仁 錫 李 元 澤 許 善 行



July 4 (Sat) ~ 8 (Wed), 2009
Ritz Carlton Hotel

300 Town Center Drive, Dearborn, Michigan

Room Rate: $125.00

Golf: Lakes of Taylor Golf Course, Dearborn Country Club, Western Golf & Country Club

2008-2009 제 1차 대의원회의 초록

일시: 2009년 1월 10일(토요일) 오후 5시
장소: New Peking Chinese Restaurant / 29105 Ford Rd. Garden City, MI 48135
참석자:
윤효윤(69) 조의열(66) 문광재(68) 장현식(70) 김유식(71) 오동환(71) 장연웅(78)
Proxy:
노용면(55) 김웅식(55) 정구영(57) 이만택(58) 이운순(58) 김병석(59) 민병덕(59) 채규철(59) 김은섭(59) 최종진(59) 임종원(60) 이재승(61) 한혜원(61) 조명호(62) 이상무(62) 김태웅(63) 한기현(63) 이유찬(64) 이홍표(64) 조동준(64) 한태진(64) 김태환(64) 이한중(65) 황규정(65) 최영자(66) 이명희(66) 이태석(67) 이근웅(67) 한영수(67) 김희주(68) 이건일(68) 이성춘(70) 곽승용(71) 강태수(71) 오상현(71) 권영조(72) 오용호(72) 황용규(72) 문대옥(73) 서인석(73)

1. 오동환 총무의 성원 (58/91) 보고 (총 91명중 10명참석-3명 겸직과 48 Proxy) 와 개회 선언.

2. 2007-2008 제2차 Delegate Meeting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제청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3. President's report

a. 폭설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b. 지난 2008년 말에 한국을 방문시, 임정기 학장, 박용현 동창회장, 강신호 명예동창회장들을 만나서, 7월달에 있을 미주동창회 convention에 초대하고,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보고. 이길여 명예동창회장님께서는 전화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심.

c. 강신호 명예동창회장님이 출판하신 한자사전을 미주동창들께 기부하실 용의가 있으심을 전함.

d. 동창회비의 collection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함.

4. Unfinished old business

a. 함춘의학상에 관련해서, 1990년대 초기에 본교 발전을 위해 미주 회원들이 모금한 fund의 missing record에 대해서 회장님의 보고. 그당시 미주동창회 회장님과 연락을 해서 fund의 행방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고.

b. 동창회 web-site의 활성화와 web-site의 역활에 대해서 토론함. Web-site의 적극적인 활성화에 대해서 모두 찬성. 그러나 web-site가 시계탑을 대신할 수 없다는데에 모두 동의.

6. 총무 (오동환) 보고: 보고 사항 없음.

7. 재무 (장연웅) 보고: Financial report와 Annual Convention financial report를 제출(별첨): 1월 10일 현재 Total revenue는 $115,301, Total expenditure는 $42,520이며 Balance는 $72,781임, Financial report를 review 한후 만장일치로 가결함.

Committee reports

1) Finance(오상현 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2) Scholarship(오용호 위원장)

a. Dr. Kenneth Kwan Ho Song Scholarship: 돌아가신 송관호 선생님이 유언으로 미주 동창회에 $100,000을 기부해서 Dr. Kenneth Kwan Ho Song Scholarship을 만들기를 원하셨음. Dr. 송 가족의 뜻에 따라, 일년에 $10,000을 미주동창회 Scholarship Fund에 전해서, $5,000은 본교 Scholarship Committee의 추천을 받은 본교 의과대학 신입생 한 명에게 주고, $5,000은 미주 동창회 Scholarship Committee 에서 추천받은 Korean-American student에게 주기로 하였음.

b. 오용호 위원장이 지난 연말 본교를 방문하고 학장님, 부학장님, MEXIM officer들과 올해 scholarship 수상자들을 만났음을 보고. 학장님께서 미주동창회가 주는 장학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함. 또한 송관호 Memorial Scholarship의 대상자를 뽑는데 도와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함.

3) Fund raising(권영조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4) Scholarship Fund Management(이명희 위원장) - 현재 scholarship fund 상황 보고. 2008년 12월 30일 현재 fund balance는 $288,176. 2008년 1월 1일에 비해서 29%가 떨어졌음. (S & P 500 지수: -39%) AXA/Equitable 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에 따라 2년만 더 기다리면 $400,814는 Guarantee 된다함.

5) Research and Fellowship(한혜원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6) Green project(서인석 위원장)- 회장님의 인준을 받아서, 본교에서 추천해온 졸업반 5명에게 $2,000씩 scholarship을 줌. Scholarship recipients: 오백록, 이가연, 양현식, 윤찬, 유나경

7) Publication(김병석 위원장)

a. 지난 9/1/08과 12/17/08에 시계탑 편집 meeting이 있었음.

b. 동창회 web site manager와 연락을 해서, 시계탑과 서로 동조하기로함.

c. Dr. 이유찬(64)이 새로 Publishing Committee에서 일하시게됨.

d. 다음 시계탑은 2009년 1월 15일에 출판예정.

8) By-Laws Committee(노용면 위원장) - 보고 사항없음.

9) Nominating Committee(최영자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10) Office Management Committee(곽승용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11) Silver project Committee(한기현 위원장)- 2009년 4/28(화)부터 5/9(토)까지 11박 12일로 Eastern Europe 여행을 준비하고 있음. Itinerary will include Berlin, Dresden, Prague, Krakow and Budapest. 경비는 $2,750 (tip과 other expense는 별도). Asia Tour에서 주관함.

12) Charity Committee (황용규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13) 2009 Convention Committee(이태석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14) 2009 Convention Scientific Committee (장현식 위원장)- 지금 현재 14명의 speaker를 구하였음. 더 많은 speaker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 중임.

15) Counselor(이한중)- 보고 사항 없음.

New Business

윤효윤 회장: 시계탑에 영어로 쓴 원고의 게재에 대해서: 많은 원고들이 아직도 영어에 오류들이 많아서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기는 부적격 하다는 Publishing Committee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원고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서 토론함. 영어 교정을 할 수 있는 분을 물색하기로함.

오후 7시에 폐회 - Respectfully submitted by 총무 오동환

신 년 사

회장 윤 효 윤(69)

선후배 동문, 동문가족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8년을 보내며 우리 동창회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선후배 동문들께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창회의 foundation 이라 할수 있는 여러 선후배 동문들의 goodwill이 신년에도 더욱 촉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 우리 회장단은 다가오는 summer convention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흥미있는 topic과 program으로 여러 동문들을 모시고 기억에 남을 성공적인 켄벤숀이 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잠깐 우리 동창회에서 한 일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 미국 각처에 있는 다섯명의 학생들과, 서울의대에 재학중인 다섯명의 의과대학생들에게 각각 2,000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전달 되었습니다. 또 고 송관호 동문 memorial scholarshiop으로 유가족께서 10만 달러를 pledge 해주셨으며 매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신입생 한 명에게, 또 Korean-American 학생에게 5천달러씩 장학금으로 수여될 것이며, 금년부터 이 장학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 송관호 동문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유지를 받들만한 학생이 있으면 장학위원회 오용호(73) 위원장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실버 프로젝트 커미티에서 준비한 동유럽 5개국 여행(4월 28일 ~ 5월 9일)에 동문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원 42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여행을 하며 친교를 하시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썸머 컨벤숀을 위해 학술위원장으로 장현식 동문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으며, 아주 다양한 연사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in care-aging prevention", Alternative Medicine, AIDS vaceine. Medical ethics, "Medical invention and patent", "Plastic surgery for Asians", Medical Mission 등 다양한 주제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서울의과대학 동문 여러분께 몇 말씀 더 드리고저 합니다.

동창회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회장직을 맡은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세상만사도 많이 바뀌었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몇 십년만에 처음 닥친 Global financeial crisis가 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과 재정이 편치 않으시라는것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여파인지는 몰라도 저와 우리 회장단의 걱정은 동창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창회비를 내주신 분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 있으며, 도네이숀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trend가 지속된다면 여러가지 동창회 활동, 특히 Annual Convention을 개최하는데 큰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입니다. 간단히 우리 동창회의 finance 즉, typical한 일년 revenue와 expense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Total Annual Membership Due $64,000와 Public Donation $4,000 합 하 여 Total Income는 $68,000 입 니 다. Total Expense $72,000 중 Payroll $27,000 Sigetop 28,000 나머지 $17,000은 professional fee, telephone and utilitles, travel expense reinbusement, printing & copies, office expense and supplies, advetisement and web-site creation 등으로 쓰여지며 어느 정도의 적자는 annual convention에서 모인 돈으로 보충해 오고 있습니다.

한 oranization으로서 아주 frugal하게, 빠듯하게 살아온 것이 우리 동창회라 할 수 있습니다.

1,600부의 시계탑을 발행하고 우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제일 큰 expense 중의 하나 입니다. 모든 동문들은 시계탑을 일년에 네 번씩 받아보시는데, 그 동문중 50% 이상이 회비 마저도 안내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어떤 동문들은 우리 서울의대동창회비는 안내시더라도 KAMA나 총서울대학교 동창회비는 내시며, 또 도네이숀을 하시는데 아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감지/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AMA도 중요하고 총서울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의대동창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사시면서 여러 단체들을 통해 charitable donation, political donation 등등의 tax-exempt donation을 하시면서 사실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동창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회비 내시고 후원금 내실때 쓰시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반송봉투를 동봉하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올 한해에도 모든 동문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신년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동문동정, 지부 및 동기소식

이규용(41) - 뉴욕 시외에 있는 롱아일랜드에 거주하시는 이규용 선배님(우리 동창회 제2대 회장)께서 지난 11월 14일에 92세를 맞이하셨다. 다행이도 선배님은 건강이 매우 좋으시다. (사진은 생신축하 파티에 참석한 의과대학 후배 노용면과 이희경)

노용면(55) - 지난 12월 13일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가졌다.

오정환(61) - 뉴욕에서 내과의로 활동하던 오동문이 2009년 1월 2일 숙환으로 7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식은 뉴욕 후러싱에 위치한 제미장의사에서 1월 5일 있었으며, 장례미사 및 발인은 정하상(바오로)퀸즈성당에서 있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오영자(루시아)와 아들 준호군 과 며느리 에스더, 딸 지영과 사위 그레고리와 손자 한일, 한수, 외손자 승일, 알렉스, 외손녀 진아 양이 있다.

한기호(61) - 충청남도 홍성에 거주하던 한기호 동문이 지난 12월 23일 타계하였다는 소식을 이상완, 김진호 동문이 전해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남가주 지부소식

추계 골프대회가 Los Serranos Golf Club, South Course에서 지난 10월 26일 (일요일) 40여명의 동창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흥겨운 동창들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상자는 메달리스트 김병수(92), 챔피온 원정범(92), 장타상 오주한(92), 근접상은 라스베가스에서 원정오신 김택수(63) 동문이 차지하셨고 여자부에서는 챔피온 Mrs. 이창우(71), 메달리스트 Mrs. 김영철(71), 장타상 Mrs. 이성춘(70)이 받으셨습니다. 또 David Leader Golf Academy Managing Partner인 원정범 동문이 제공한 개인 레슨 상품권은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이원택(71) 고용규(73) 김영철(71)이 차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Break Thru 21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실현의 일환으로 LA 한인타운 내 서울대학교 병원 LA사무소를 열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LA사무소 개소식 및 건강 심포지움을 Oxford Palace Hotel에서 주최했는데 많은 초청 인사들과 대학교 병원장인 성상철 교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인 정진엽 교수, 동병원 기획조정실장인 박노현 교수, 강남 부원장 조상헌 교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서울 대학교 남가주 총 동창회의 주최로 서울 대학교 출신 전문인 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들이 Community Service Day를 가져 300여명의 교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의대 동창회에서는 오형원(59) 전영균(65) 임번(67) 김성환(71) 조형기(92)동문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총무로 임명된 조형기(92) 동문이 통증 클리닉 Anapa(안아파) Pain Clinic 을 3545 Wilshire Blvd. Suit 109, Los Angeles, CA 90010에 12월1일에 열었습니다.
Tel. (213) 386-8275 Fax. (213) 386-8285로 향후 남가주 동창회 연락 사무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숫기가 없어서 장가를 못갈줄 알았던 김명원(68) 동문의 장남 동우(Don)군이 엄마를 닮아 꽃같이 예쁜 미녀 Jennie Carter 양을 만나 지난 10월 5일 S. Carolina Chaleston에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Don군은 Dept of Commerce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Jennie 양은 Financial consultant 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례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Oxford Palace Hotel에서 2009년 1월 31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빠짐없는 모든 동문들의 따뜻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남가주 KAMA(한미의사회)에서는 2009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김홍서(69) 동문의 취임식을 겸한 연말파티가 12월 6일(토)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동문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회장 김동문을 비롯해 총무에는 최광희(76), 부총무 조형기(92) 동문 등이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1년 졸업 15회 동기회 2008년모임

15회 졸업 동기동창회를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홀랜드 아메리칸 라인의 빈담(Veendam)호에서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23쌍, 2 부인, 그리고 한국에서 4쌍이 참석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심영보, 이재흥, 조일균, 지삼봉, 미국에서 강창욱, 강세부, 김성준, 김영기, 김영철, 박승균, 서영석, 서휘열, 손기용, 성홍일, 안창현, 오원환, 이혜원, 이희경, 장성환, 장태환, 정이철, 정철융, 조은순, 진창건, 최지현, 한수웅, 황현상, 그리고 김유홍동기의 부인과 하상배동기의 부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반가운 재회였습니다. 특히 김유홍동기가 강원도에서 수고를 하는 사이에 부인께서 하상배동기의 부인과 합께 참석하여 우리의 모임을 더욱 뜻있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때보다 많은 동기부부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뱃노리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서로 만나고, 어깨를 부비고,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흥겹게 담소를 나누며 지나다 보니 여드래가 번개같이 지나 갔습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수고한 조은순 회장의 바톤을 받아 서영석이 새 회장 임무를 시작하고 차기회장으로 안창현을 선출해 동기회 장래기획을 맡기었습니다. 강창욱이 운영하는 snucm61.org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히 볼 수있습니다.

追慕辭

우리의 친구 吳定煥 요한 형제, 주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나라 가심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刹那)에 불과한 인생, 오늘과 내일, 연전이나 연후 따져 본들 길고 짧음 가릴 수 없는 人生無常이지만 순간의 희노애락을 감지하고 기억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본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사랑하는 벗의 떠남이 이토록 애절한가 봅니다.

고인의 어진 성품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의 자세는 많은 지인 붕우(知人 朋友)의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본업인 의사로서도 명의가 되게 한 귀중한 자질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불혹의 나이에 뉴욕 플라싱에 심장내과전문의로 개업을 했는데, 그의 성실한 진료 소문은 구전으로 전파되여 수년의 짧은 기간에 고명의(高名醫)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비를 면해주는 선행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투병기간동안 문병객중에는 그의 인술의 덕을 못잊어 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았으며 사흘이 멀다하고 찾아와 간병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 주셨는데 이젠 제가 선생님 살려드리고 싶다" 면서….

과묵한 편이지만 친구와의 대화를 좋아하고 여가에 온라인 바둑, 가요, 가극, 연속극, 사극 등 관람을 즐겨하였고 비데오 녹화도 잘 하였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면 비데오 녹화를 해서 DVD를 제작해 주기도 하고, 가라오께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동료개업의 선후배들과 신뢰깊은 직업적 사교적 교류도 성실히 가꾸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골프를 좋아해서 친구들을 자기 클럽에 자주 초대하였습니다. 제가 고국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뉴욕에 들리면 어김없이 자기 클럽에 초대해 주었고, 7년 전 한국 근무가 끝날 무렵에 오박사 내외가 서울로 전화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Port Washington의 Harborview Gated Community 건설 project를 알려 주어 저의 뉴욕 귀환을 잊지않고 도와준 우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구한 운명의 작난인지 그 다음해 봄 제가 정든 친구들이 살고있는 제 2의 고향 뉴욕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던 때에 고인의 발병소식을 청천벽력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고별 고국순환 여로에서 들리는 절간마다 대웅전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친구의 쾌유를 기원하는 착잡한 여로가 되었드랬습니다. 오랜 투병중에도 요한 형제는 천주믿음 게을리 하지 않고 노약자와 병자를 돌보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봉헌을 계속하다 천주의 부름을 맞았든 것입니다.

고인은 슬하에 장남 준호(Richard)군과 장녀 지영(Caroline)이 의사로서 활약하며 좋은 배필들을 만나 손자 넷, 손녀 하나의 귀염둥이 손주들이 있으니 축복받은 집안이며, 또 그를 극진히 따르고 사랑하는 수많은 친척들의 대부(Godfather)격인 지주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영생에 비하면 인생은 무상하지만, 순간의 희노애락을 감지하며 살아가는 인간본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벗의 떠남이 이토록 애절하기만 합니다.

벗이여 하늘나라에서 천주의 은총 가득히 받으시고 영생평화 누리소서.

2009년 1월 5일 - 친우를 대신하여 李熙景이 적었습니다

조종윤 동기의 작별을 추모하며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 싸이플레스에 거주하시던 비뇨기과 전문의 조종윤 동기(55)가 심장질환으로 지난 11월 13일 향년 79년세로 작고하셨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게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노용면

Green Project Corner

지난 10월 오용호(72) 장학위원장이 모교를 방문하여 MEXIM 동아리 회원들과 학장, 부학장, 지도교수를 만나 동아리의 현황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초대회장 윤찬 군의 뒤를 이어 동아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대회장 전인표 군의 미주 동문들께 드리는 인사말과 지난 여름 elective 경험 후기를 한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Green Project Chair 서인석(73, 대뉴욕)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서울대의대 MEXIM 차기 회장 전인표입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선전(全)가 채미헌공파 20대손으로, 고향은 청주입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생명과학부를 졸업한 후 학사편입을 통해 서울의과대학교 본과 06학번으로 들어와 현재 본과 3학년 재학중입니다.

의과대학에 들어온 계기는 활동적인 제 성격이 연구자보다는 환자들과 직접 만나고 부딪치는 의사에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한 가지이고, 고등학교때부터 가졌던 뇌에 대한 관심과 대학교 때의 혈관내피세포 연구실에서의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뇌졸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경과학, 응급의학, 보건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MEXIM은 2006년 이정석선배가 처음 모임을 만들 때 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미국에서 의학을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이정석 선배에 대한 신뢰도 이 동아리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함께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지난 2년동안 MEXIM이란 동아리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논문을 리뷰 및 토론하고, 모의환자진료를 연습하는 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에 대해 초기에 가졌던 무지에 의한 장미빛 환상이 아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비젼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에 오셨을 때 뵈었던 조형기 선생님, 강현석 선생님, 채영광 선생님의 말씀도 좋은 간접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MEXIM을 통해 만나뵈었고 뵙게 될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좋은 선배 동기 후배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EXIM의 비젼이나 구체적인 계획, 본과 4학년으로 올라가는 동기들에 대한 소개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홈커밍데이에서 졸업한 선배들과 다모여서 대략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회장단이나 동기들과 자세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말 시험때문에 1월 중순까지는 모임을 갖기 어려워서 그 후에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작년에는 동아리를 만들고 작년에는 동아리가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정했다면, 올해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들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 전인표 올림

Memorial Sloan-Ketterring Cancer Center 임상실습 후기

윤 찬(본과 4학년)

I. 여는 글

나는 2008년 1월 21일부터 4주간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MSKCC)의 general surgery-surgical oncology 내에 있는 colorectal team에서 임상실습을 하였다. 이곳은 world' soldest and largest cancer center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암센터로 MD Anderson cancer center와 함께 암 분야에 있어서 미국 내 1, 2위를 다투는 곳이다. Medical Oncology는 MD Anderson이, Surgical Oncology는 MSKCC이 미국에서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코넬대학교 의과대학과 affiliation 되어 있는 이 곳은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이다. 전세계에서 수 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연수/실습을 오는 곳으로 항상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이 붐비는 곳이다.

단 4주였지만, 이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미국에서의 외과의사의 생활, 미국의 최첨단 병원,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었다. 이 글을 통해 나는 해외연수를 가게 된 계기와 목표, 준비한 과정과 지난 4주간의 경험까지 다시 돌이켜보며 정리하려고 한다. 이는 후에 이러한 해외연수를 계획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다. 본인이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인지 몸소 체험하였기에 다음에 시도하는 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 경험을 다른 여러 학우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II. 해외 연수를 생각하게 된 계기

본과 3학년 여름, 학교에서 진행되는 실습일정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던 나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4학년 선배들이 미국으로 임상실습을 떠난다는 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때만 해도 외국의과대학 병원에 임상실습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관심을 가진 몇몇 사람만 자신이 혼자 정보를 찾고 준비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가야만 했다. 4학년 선배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미국에 다녀왔고, 그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동아리 MEXIM (More Experience In Medicine)을 만들었고 앞으로 해외 임상실습을 할 기회가 있을 나와 같은 3학년 학생들을 멤버로 모집하였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선배들이라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임상실습과는 많이 다른 미국의 임상실습에 커다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선배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는 정장 옷 한 벌을 고를 때에도 여기 저기서 입어보고 가격, 성능, 나에게 어울리는지 등을 고려하여 옷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정작 다른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채, 별 고민도 없이 우리학교의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를 하고 그 후에 펠로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옷 한 벌을 고를 때에도 이것 저것 입어보는 우리가 정작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던지 여러 가지를 여러 곳에서 경험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의 의학발전을 리드해 가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의료수가제도, 수련의 제도, 의대생들의 교육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세계화는 이미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비껴갈 수 없는 국제적인 큰 흐름이다. 나는 앞으로 한국이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한국 의학도들이 의료 선진국들의 시스템이나 앞선 의료 기술 등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평소의 나의 생각은 선배의 말을 들은 후 미국으로 임상실습 가는 것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었다.

III. 해외연수 신청 과정

(1) 지원 결정

미국으로 임상실습을 가겠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기에 선배님들의 조언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선적으로 병원을 정해야 했다. 이 때 동아리 MEXIM에서 2007년 9월에 시행한 해외임상실습 설명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학교로 임상실습 다녀온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들은 후 MSKCC로의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MSKCC에 대해 잘 몰랐던 나는 이렇게 좋은 병원이 외국인 학생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3학년 임상실습을 마친 후에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Oncology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일반외과의 실습을 돌면서 암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랬기에 더욱 Surgical oncology의 최고 병원이라는 이 곳으로의 지원에 마음이 가게 되었다.

지원을 결정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유명한 병원에 가야겠다는 점이었다. 이 조건에 있어서 MSKCC는 수술적 암 치료에 권위가 있는 병원이었기에 최고의 조건이었다. 두 번째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이었다. 특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등록금이 너무 비싼 하버드 대학병원과 같은 곳은 갈 수가 없었다. MSKCC는 너무나 고맙게도 학생임상실습에 지원비만 소액을 받고 등록금은 받지 않는 병원이었다. 세 번째는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병원이라는 점이었다. 외국대학병원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전해 들었던 터라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점이었는데 이 곳에 다녀온 선배님께 물어본 결과 뉴욕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종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한국인에게도 호의적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후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이 곳으로의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2) 해외 연수 신청 과정

우선 elective 신청을 위해서는 그 병원 홈페이지(www.mskcc.org)에 가서 elective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학교에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을 요구하였다. 지원서와 medical status form (건강기록), 성적표, 자기소개서 (curriculum vitae) 및 Cover letter, 학장님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체류기간 동안 여행자보험증명서류, malpractice insurance, application fee $100였다. 다른 학교들과 달리 등록금이 없었고, 관광비자(B1/B2 Visa)로 지원이 가능했다. 또한 USMLE 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직 본과 3학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임상실습을 시작할 시점에서 끝날 계획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였다. 이 학교는 Elective module date라고 이미 elective의 날짜가 한 달 단위로 정해져 있었는데 외국인 학생의 경우 방학 스케줄이 그 날짜와 맞지 않을 경우 날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 지도교수님의 추천서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medical status form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기에 가장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 지원을 준비하던 시점이 한창 바쁠 3학년 말이었기에 기나긴 중요한 시험인 연말고사를 앞두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별 시행착오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 합격통보가 오기 전에 한가지가 문제로 제기되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3학년 임상실습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이었다. MSKCC측에서 내 지도교수님께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지도교수님께서 나의 성실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덕분에 지원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었다.

연말고사 준비에 정신이 없을 11월 말이 되어서야 합격되었다는 이메일이 왔고, 그 때부터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머물 숙소를 구하고, malpractice insurance를 구해야 했다. 보통 지원하고 답이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서둘러야 했다. 비행기 표의 경우 합격통보를 받은 즉시 구입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고 가는 것이 확실했기에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저렴한 티켓들을 온라인 투어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숙소문제였다. 소속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병원이 아니기에 기숙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호텔에 머물기에는 뉴욕이라는 곳은 너무 물가가 비싼 곳이었다. 호스텔의 경우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여러 모르는 사람과 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꺼려지게 되었다. 이때 미국에 있는 유학생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서브렛(Sublet)이라는 탁월한 해결책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집을 빌려서 생활하게 되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편하고, 가격에 있어서도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서브렛은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브렛 중개 사이트를 이용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하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heykorean.com이라는 중개 사이트가 유학생들 사이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 위치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사진 또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준비가 어려웠던 것이 malpractice insurance였다. 이것은 내가 미국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혹시 일어날 지 모르는 의학적 과실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외과로 가서 수술에 참여할 것이기에 더욱 필요한 보험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이 malpractice insurance를 학생에게 만들어 주는 곳이 없었다. MSKCC에 문의하여 찾아본 끝에 academic group 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은 보험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cademicins.com/index.html) 이메일과 전화연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Ⅳ. 해외 연수

(1) Arriving MSKCC

긴 비행 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나는 뉴욕의 상징적인 엘로우 캡을 타고 맨하탄에 접어들었다. 날씨가 좋고 하늘도 참 맑은 날이었는데 역시 겨울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추웠다. 내가 구한 서브렛 아파트는 48가 선상에 브로드웨이와 8 애비뉴사이에 위치한 Ritz club이라는 아파트로 새로 지은 아파트였다. 집주인은 엔젤라 윤이라는 한국 분이셨는데 멀리서 온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써 주셨다. 일요일에 도착한 나는 월요일 아침부터 바로 병원실습 일정이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새로운 도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채로 긴장한 채 잠들었다. 시차적응이 안되어서 새벽 4시에 눈이 떠진 나는 첫날이라 긴장하는 마음에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지하철과 버스 타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일찍 집에서 나온 나는 아침 일찍 MSKCC에 도착하였다. 로비에서 여러 생각을 하며 기다린 후 나는 오전 9시에 notice 받은 대로 메인 빌딩 12층에서 해외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Ms. Robin을 만나 뵙게 되었다. 그곳에서 병원 ID Card를 받고, colorectal surgery department로 배정되었다. 나는 앞으로 한 달간 Colorectal Department의 과장이신 중국인 의사 Dr. Douglas Wong의 팀에 속하게 되었다. 나를 돌봐줄 fellow는 Dr. Nash (Garret Nash)로 아일랜드 출신의 미남 의사였다. 또 레지던트 한 명이 같은 팀에 있었는데 이 레지던트는 Dr. Ovie로 나이지리아 출신 의사였다. 중국,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출신의 다국적 팀에 속하게 된 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반겨주는 그들의 태도에 산뜻한 기분으로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2) 해외연수 내용 & 느낀 점

MSKCC에서의 4주간 나의 지도 교수님은 Dr. Wong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인 교포 2세였다. 그래서 그는 중국인 임에도 중국말에는 능통하지 않았다. Colorectal Service의 chief로 있는 그는 the American Society of Colon and Rectal Surgeons에서 Executive Council을 맡고 있는 학계에서도 영향력이 큰 분이었다. 그의 주관심 분야는 Sphincter Saving Surgery, Anorectal Physiology Testing, Anorectal Ultrasonography였다. 특히 Anorectal USG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많은 임상연구 업적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다. Dr. Nash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으로 대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의사의 길을 가게된 분이었다. MSKCC는 자체의 레지던트는 없고 코넬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들이 몇 달간 rotation 형식으로 파견을 오는 곳이라고 하였다. Dr. Ovie 역시 그런 케이스였다. 특수한 병원이기에 대개 학생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Clinical Elective로 오게 되는데, 내가 있던 시기는 4학년 학생들이 matching이 끝나서 별로 elective를 열심히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였다.

Dr .Wong은 일주일에 이틀은 수술, 이틀은 외래 진료를 하였고, 금요일은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날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의 스케줄도 이에 따라 진행되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나의 일과는 Morning Round(아침회진)로 시작되었다. 외과라서 일찍부터 시작된 스케줄은 시차에 적응되지 않은 나에게 적합한 스케줄이었다. 아침 회진에서는 전에 수술 받은 Post OP 환자들을 살펴주고, 오후에 있을 교수님과의 회진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환자의 Vital Sign을 점검하고, urine output, 수술부위에서 fluid는 얼마나 나왔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수술 부위의 Dressing, stapler를 뽑는 것과 같은 수기를 Dr. Ovie와 분담하여 같이 하였고, 간단한 physical exam을 하였다. 월요일은 아침회진 후에 grand round가 있었다. 이는 oncology 관련하여 여러 주제로 lecture를 듣는 시간이었다. Surgical Oncology 뿐 만 아니라 Medical Oncology, Radiation Oncology도 모두 참여하여 흥미로운 주제들의 강의를 들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강의는 "Liver Transplantation for Hepatic Malignancies: What are the Limits?" 라는 주제의 Dr. William C. Champman의 강의였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간암 분야에서 수술적 치료의 최신 지견들을 접할 수 있어 가장 좋았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외래가 있는 날이었다. 좁은 곳에 많은 빌딩들이 있는 뉴욕 맨해튼의 오래된 병원답게 커다란 메디칼 센터가 하나로 조성되어있지 않고 외래 병원은 한참 떨어진 곳에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외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병원셔틀을 타고 다른 빌딩으로 가야 했다. 외래에서는 보통 하루에 10~20명 정도의 환자를 보았다. 그 중 반 정도는 수술 후 Post OP Follow up 환자였고, 나머지 반은 Pre OP로 evaluation을 위한 환자였다. 모든 환자들에게 Digital Rectal exam을 시행하였고, 상당히 많은 환자에게 Anorectal USG를 하였다. 바쁜 우리나라의 외래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차분한 분위기의 외래였다. 외래 중간에도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언제나 Dr. Wong 또는 펠로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답해 주셨다. 이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많이 놀랐던 것은 환자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는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환자들이 대부분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는 Dr. Wong을 보며 환자들은 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의 말을 따랐다.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며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수술실에서 보내는 날이었다. Colon Resection(Colectomy), AR(Anterior Resection), LAR(Low Anterior Resection), APR (Abdominal Perineal Resection), Pelvic Exenteration과 같이 다양한 수술에 scrub in 하여 참여하였다. 자체 레지던트가 없어서 수술실에 항상 일손이 부족한 터라 학생들의 참여를 무척 반가워하였고, 덕분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차이를 느낀 곳이 바로 이 수술실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술실의 교육이었다. 수술실은 가장 활동적인 교육의 현장이었다. 담당교수가 대부분의 수술을 하고 펠로우와 레지던트가 그 보조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펠로우가 수술을 집도하고, 교수는 그것을 보조해 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다. 이는 레지던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교수가 수술에 참여하기 전 단계 혹은 교수의 참여가 끝난 후에는 레지던트가 집도하고 펠로우가 보조하며 가르쳐주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펠로우와 레지던트의 실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이것 뿐 만이 아니었다. 학생인 나에게도 그저 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는 과정과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나에게 자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또한 때때로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쥐어주기도 하였다. 수술 전 환자의 foley를 꽂는 것, bowl을 청소하는 작업은 주로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었고, 수술 중에도 open할 때, 수술 중간 중간에 Bovie를 쥐어주며 직접 해 볼 것을 권하였다. 또한 closing 할 때에는 내가 일부분을 맡아서 suture하기도 하였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 교수님께서 계신 상황에서도 레지던트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신있게 설명해 주었고, 이 설명을 들은 교수님이나 펠로우는 이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다.

두 번째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수술실의 분위기였다. 다소 경직적이고 무거운, 혹은 무서운 우리나라의 수술실과는 달리 이곳의 수술실은 정말 화기애애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의사들끼리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미국인들의 겉치레라고도 할 수 있는 친절한 말투(말 끝에 붙이는 'please'와 같은)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여졌지만, 역시나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의사들은 수술 중에 서로 서로 농담을 하였다. 내가 bowl을 너무 살살 잡으면 자신이 예전에 가르쳤던 독일 여자 학생인 Orga라는 학생보다 힘이 약하다면서 "한국인 남자는 독일여자보다 힘이 약한가?"라는 농담을 던졌고, 너무 세게 잡으면 "Hey Mr. Orga, calm down"이라고 하며 재미있는 분위기로 지도해 주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미국에 오기 전 친구에게 선물받은 고양이 무늬의 예쁜 수술모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으로 혼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오랜 시간의 수술이 커다란 스트레스라기 보다는 재미있는 시간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느껴졌던 차이는 시설이었다. 수술실에는 수술 현황을 알리는 monitor가 배치되어 있어 어느 누가 수술 중간에 들어와도 어떤 수술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 있고, 어떤 단계로 진행 중 인지,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 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환자들은 수술 전과 후에 차가운 수술실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air tube 이불을 덮고 있었고, 환자의 다리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주기적으로 조여주는 pump가 달려 있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에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povidone iodine 이외에 ultradex가 있었고, 물 없이 씻을 수 있는 avagard도 있어서 의사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쓸 수 있었다. 방문객이 많은 병원답게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수술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뛰어난 시설들은 이 병원이 이래서 미국 최고의 병원이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 외의 일정들은 여러 회의들이 있었다. Surgical Oncology meeting은 각 분야의 펠로우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 발표하거나 연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고, 월요일 저녁에 있는 Disease management meeting은 colorectal service의 어려운 케이스 들에 대해 이 팀의 여러 외과의들과 내과의사 방사선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과 교수들이 모여 management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었다. 그 외에도 journal club, Mortality and Morbidity conference와 같은 회의들에 참석할 수 있었다. .

(3) 여가시간

주중에는 바쁜 일정으로 그리 여가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주말에는 여유로운 여가를 보낼 수 있었다. 비록 날씨가 추워서 관광이 쉽지 않았지만 처음 와본 뉴욕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자칭 세계 최고의 도시답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대는 바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미식축구 결승인 슈퍼볼이 있는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약체로 평가되던 뉴욕 자이언트가 극적으로 뉴잉글랜드를 이기고 우승한 것이다. 마치 2002 월드컵때 우리나라를 보듯 이날 밤 뉴욕은 축제분위기였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등 흥미로운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도시였던 뉴욕은 내 기억 속에 다이나믹하고, 멋진 도시로 남게 되었다.

Ⅴ. 닫는 글

한달 간의 임상연수를 마치며 한 달간 나를 담당해준 펠로우 선생님이신 Dr. Nash와 저녁을 먹을 기회를 가졌다. Dr. Nash는 병원 근처의 오래된 햄버거 집에 나를 데려가 전통 미국식 버거의 맛을 보여주었다. 이날 저녁의 대화에서 그는 미국에 오게 된 계기와 외국인으로서 이곳에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주었고, 앞으로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다. 실습 마지막 날 Dr. Wong 역시 미국에서 성공적인 외과의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연수에서 배운 지식들과 이 곳에서 느낀 점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되던지 성장하는데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젊은 의학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이런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야만 우리나라 의학계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본과 4학년때 동아리 MEXIM의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서히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아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미주동창회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동아리 MEXIM을 통해 더 많은 학우들이 미국에서의 임상실습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오로산책 (烏鷺散策)

이유찬(64, 뉴저지)

중학교 때 할아버님으로 부터 바둑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였으니, 내 기력은 어언 반 세기가 넘는 셈이다. 오십 여년이 지난 지금도 내 바둑 실력은 자칭 아마추어 유단자라고 표방하는 정도이니, 원래 기재가 없음을 거듭 자탄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바둑의 역사는 중국의 요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듯 하나 확실한 연대는 아무도 모르며, 다만 그 근원이 중국인 것만은 사실인 듯 하고, 또한 고대 우리의 삼국시대에도 이미 바둑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널리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삼국 특히 백제로부터 바둑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사실이며, 이 점은 허다한 역사적 증거에 의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근대에 들어와서 저들이 이 바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마치 일본이 바둑의 종주국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아가서는 유럽과 미국 등지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뒤늦게나마 서구로 바둑을 보급하는 데에 급히 합류하였으나 일본의 약삭바른 행동에 비교하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바둑을 뜻하는 기(棋)자를 일본인들이 '고'라고 발음하는 연유로, 서방에서는 'go'라는 것이 바둑의 보통 명사가 되어 버렸다. 이들 서양인들에게는 아무리 "baduk" 또는 "badduk"이라고 역설하여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근래의 동양 삼개국(한국, 중국, 일본) 국제대회 성적에서 한국이 단연 우세하고 그 다음이 중국, 일본의 순서가 되는 것이 상례라는 점이며, 일본은 거의 준결승에도 못 올라가고 탈락되는 것이 다반사라는 사실이다. 요새는 중국세가 점점 만만치 않은 것이 좀 마음에 쓰이지만, 하여튼 일본은 바닥 첫째를 도맡아 하기에 바쁘다. 이 사실은 이 곳 American Go Association(AGA) 에서 발행하는 American Go Journal 이나 American Go Yearbook에 정확히 공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내가 이 점을 누누히 강조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시절 그들의 유단자들 (그것도 무명의 저단자들)이 한국에 와서 소위 내노라 하는 조선의 국수들을 대파하고 온갖 야비한 표현을 빌려가며 쓴 그들의 '조선 바둑 정복'이라는 기행문을 읽고 하두 흥분하여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친 씁쓸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우리 선조들이 둔 바둑은 순장바둑이라고 하여 흑백이 미리 여덟 내지 아홉 점을 놓고 두는 순수한 토박이 바둑이었다. 그런 때에 요새 우리가 두는 현대식 바둑과 똑 같은 저희들의 바둑으로 이겨 놓고서, 형편 없는 조선의 국수들을 모조리 무릎 꿇렸다고 불경스럽게 떠들어 댄 저들의 언행은 정말 바둑의 깊은 정신의 초보도 모르는 무뢰배들의 망언이라고 하겠다. 다행이(?) 근래에는 그들의 절정 고수들이 한국의 젊은 사자들의 된장 바둑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이니, 이는 저들로 하여금 깊이 반성 자숙하며 겸양지덕을 배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 자세히 밝힐 것은 못되지만, 필자가 젊은 시절 롱아일랜드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에, 그곳 대학이나 국립 검사실에 와 있던 아마추어 고단자급 일본인 교환 교수들과 대국할 기회가 몇번 있었다. 그때마다 바둑판 저쪽에서 건너오는 그들의 오만심은 그들 자신을 자승자박하게 하여, 나에게 높은 승률을 안겨 주었다. 이런 바둑은 정수정도(定手定道) 앞에 깨지게 마련이다.

각설하고, 그럼 정말 바둑의 정체는 무엇일까? 선듯 대답하기 어려운 명제이지만, 바둑은 한낱 시간이나 낭비하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인격 도야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련도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게임면에서 볼 때도, 진정한 승부는 누가 더 잘 두냐는 단순한 승패를 떠나서 피차의 인격과 성품이 여실히 반영되는 승화된 수준에서 펼쳐지는 수담(手談)의 교환이라고 하겠다. 이런 바둑을 몇 판 두어 보면 상대의 사람됨을 금방 감지할 수있다. 그래서, 승패를 떠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 바둑을 두었나 즉, 얼마나 좋은 기보를 남길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는 진정한 승부사가 될 수있을 것이다. 이조 시대에 선비들이 사예(四藝)라 하여 그들이 인격수양을 하는 과정에서 금기서화(琴棋書畵)를 익히며 공부했음을 보아도 바둑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있다. 요근래 한국 정부 문공부에서 바둑을 오락 잡기의 범주에서 뽑아내어, 스포츠의 하나로 분류시키고 나아가선 대학에 바둑학과가 신설 되었으니, 바둑은 정녕 두뇌 스포츠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예로부터 바둑을 우리 생활에 유익한 점이 많다 하여, 위기오득(圍棋五得)이라고 불렀다. 즉 (1) 득호우(得好友;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음), (2) 득심오(得心悟; 마음의 깨달음을 얻음), (3) 득인화(得人和; 원만한 대인 관계를 얻음), (4) 득천수(得天壽; 치매 같은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 할 수 있음), (5) 득교훈(得敎訓; 인생의 좋은 교훈을 얻음), 등이 그 다섯 가지 이득을 일컷는 구절 들이다.

그리고 바둑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수 많은 격언과 충고들이 많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인생 살이에 등불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어떤 전략 용어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숨은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명언이요 금석지언(金石之言)들임에 틀림 없다. 몇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청심과욕(淸心寡慾; 마음 가짐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내라.)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에 눈이 어두면 큰 것을 잃으리라.)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서쪽에 마음이 있다.)

도남의재북(圖南意在北; 남쪽을 도모하는 척 하나 뜻은 북쪽에 있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적을 도모하기 전에 나 살 궁리를 먼저 해 놓을것.) 등등이 그 예들이며, 이 모두 우리의 정곡(正鵠)을 찌르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생을 현명하게 살아 가는 방법에 활용할 수있는 위기십결(圍棋十訣) 이라는 유명한 바둑 전술 용어가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바둑을 잘 둘 수있게끔 도와 주는 열가지 전술 비결들을 일컬음 이다. 여기서는 그 제목만을 열거해 보려 한다.

즉, (1) 부득탐승(不得貪勝), (2) 입계의완(入界宜緩), (3) 공피고아(攻彼顧我), (4) 기자쟁선(棄子爭先), (5) 사소취대(捨小就大), (6) 봉위수기(逢危須棄), (7) 신물경속(愼勿輕速), (8) 동수상응(動須相應), (9) 피강자보(彼强自保), (10) 세고취화(勢孤取和) 등이 그들이다. 잘 해석하여 음미하여 보면 그 깊은 뜻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명언 절구들이 부지기수이나, 다 열거할 수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나는 좋은 상대를 만나서 수담을 나눌 때, 그 한 판의 바둑을 우리의 일평생과 비교하며 과연 오늘은 한 편의 좋은 기보를 남길 수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을 반성해 보려고 노력한다.

바둑의 포석 단계는 앞으로 다가올 생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시기, 중반 단계는 실제로 자기가 구상한대로 마음껏 펼치고 활동하는 시기, 종반 단계는 벌려 놓았던 생을 정리하며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 끝내기 단계는 버릴 것은 버리고 거둘 것은 거두어 들이는 추수의 시기라 할 수있으니 이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좋든 싫든 겸허한 마음으로 승복하게 된다. 즉 한장의 기보는 한장의 인생 성적표라고 할 수있다. 이제 어언 고희를 맞는 내 인생 성적표는 과연 몇 점 짜리나 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알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 즉 요새는 인터넷 바둑 (소위 cyber baduk)이 유행하여 한국은 물론 미국내에서 바둑 두기가 훨씬 용이해 졌다. 은퇴한 동문님들, 옛말 청경우독(淸耕雨讀) 대신, 맑은 날은 골프 치시고 비 오는 날은 한 장의 좋은 기보를 만들어 보시길 권장하는 바이다.

Finlandia

고애자 (이운순 58, 뉴저지)

Finland 하면 '핀랜디아'를 작곡한 시벨류스(Silbelius)로 곧 연상시킨다. 그는 1865년부터 1957년까지 살며 핀랜드 독립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핀랜드는 300년간 스웨덴의 속국으로 있다가 1907년 부터는 100년동안 제정 러시아 황제의 군주적 독재 정책으로 핀랜드 문화, 역사 또 신문은 완전 박살 당하고 살아 왔었다.

핀랜드는 세계에서 거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년중 겨우 3개월 동안만 경작할 수 있어 주로 감자와 건초 재배가 경작지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우유로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 수출하고 산악지대가 압도적이어서 나무를 벌목하여 목재의 80%를 외국으로 수출한다.

지금은 '노키아'라는 셀루라폰을 만들어 세계의 48%를 장악하고 있어 삼성도 따라가지 못하는 막강한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시벨류스는 국민음악가로 적시 적소에 태어나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발표하여 지금은 세계 전체 작곡가의 6위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으며 그도 또한 의과대학에 다녔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 렛슨을 받았으며 형은 첼로, 누나는 피아노로 셋이서 앙상블도 하면서 자랐는데 그는 10살 때부터 작곡할수 있는 재능을 보여 16살에는 이미 '피아노 트리오'라는 작품을 내어 놓았다.

그는 24살 때 국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작곡만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 베를린과 비엔나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시벨류스는 칼라 베라(Kalavela)를 특별히 좋아하고 자연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산 바위 위에 앉아 자연과 더불어 바이올린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칼라벨라는 핀랜드의 서사시(epic poem)로 1827년 Elias Lonnorot(1802 ~ 1884) 라는 사람이 지금의 헬싱키 대학을 나와 핀랜드 동쪽 지방(Estonia, Republic of Karelia)을 15년에 걸쳐 11번 이나 다녀오면서 쓴 글로 125만부가 출판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50여 나라에 번역판이 나왔으며 세계적 문학가들의 큰 영향을 끼친 핀랜드의 신화집(mythology) 이다. 친근한 예로는 근래에 상영된 'Lord of Ring'을 들 수가 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칼라벨라에 나오는 주역 인물들을 인용하여 작곡한 곡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곡으로 Karelia Suite Orll 를 들 수가 있다.

Finlandia는 그의 심포니 1번과 2번 사이에 35세 때 지었는데 교향시로서 내용은 칼라벨라에서 발췌된 시로 "우리는 금도 은도 원치 않는다. 다만 저 맑은 공기, 저 높은 하늘, 저 깊은 바다를 우리에게 돌려 달라. 우리는 날 때부터 자유로이 태어났으며 죽어도 자유로히 죽어야 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여 앙상블, 합창, 오케스트라 등 여러 형태로 편곡되여 국민 전체가 부르기 시작하여 애국가 같이 되어 국민독립운동의 발전으로 움트기 시작하였다. Romano Tsars 정권에서 금지령을 내려 부르지 못하도록 하니 다른 나라로 새어 나가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1903년 그가 38세에는 또 다른 대표작품의 하나로 바이올린 협주곡을 지었는데, 바이올린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악기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려 꿈꾸다가 비엔나에서 열리는 콩쿨에서 멘델스죤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연주하였으나 입상치 못해 크게 실망한 나머지 그의 심금을 다 바쳐서 지어낸 곡이다. 필자는 장거리 운전시 여섯번이나 계속해 들은 적이 있다. 이 곡은 들을수록 싫증이 안나는 곡이다. 상쾌하고 활기차며 경쾌한 리듬에 정열적인 멜로디에 낭만적인 멋진 곡으로 이 악장은 눈물이 나게 하는 곡이다.

초연은 헬싱키 오케스트라와 작곡가의 지휘로 발표되었으나 곡 자체가 너무 힘들어 실패로 돌아갔고 다음해 다시 써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Richard Strauss의 지휘로 연주되어 대성공적으로 발표되었고, 다음해 1906년에는 뉴욕 필하모닉에서도 초연을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심포니 7개를 지었으며 8번째 곡은 작곡가가 원치 않았으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950년에 녹음해 놓은 것이 있다.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자면 브람스, 베토벤, 멘델스죤을 꼽는데 4개를 든다면 차이코프스키를 넣고 5번째는 시벨류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트 d minor을 넣게 된다. 지금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연주곡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16살에 시작하여 64세까지 무궁한, 세계적으로 연주되는 곡들을 썼으며 애국 작곡가로 생을 마쳤다.

핀랜드는 소련 10월 혁명때 나라를 찾았는데 그즈음 문인, 시인, 작가들의 영향력이 큰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 당시 좌파와 우파들에 의한 독립전쟁이 일어나 형은 살해당하고 시벨류스는 북쪽으로 피난가 그때부터 30년 동안 펜을 놓고 은거생활을 하다가 향년 92세에 뇌일혈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 핀랜드에는 그의 동상, 그의 공원, 그의 우표까지 독립운동의 선구

너무 늦지 않으리 (Rejuvenation)

나 수 섭(50, 메릴랜드)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 라고 하였는데 지금 나로서는 시간은 금보다 귀중하다 (Time is more precious than gold) 라고 표현해야 더 실감 나게 들린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계획했던 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허다함을 느낀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요즈음 나에게는 큰 명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 궁여지책(out of desperation)으로 rejuvenation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동안 마음에 그려왔던 '3G'가 없었더라면 지금 나의 삶은 얼마나 메마르고 처량 했을까 싶을 정도로 소중한 세 개의 삶의 활력소에 매달리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Golf 와 Green 그리고 Girls 인것이다.

Golf는 나에게 어떤 보약으로도 비교 할 수 없는 삶의 활력을 주는 존재라고 할수 있다. 뒤돌아보니 그 옛날 한국에서 성모병원 교수 생활을 할 때 알고 있던 골프는 사치와 허영에 찬 사람들의 오락이었기에 전연 관심 밖의 일이였다. 그리고 40세에 미국에 와서 새로 시작하여서는 바쁜 삶에 쫓기며 살 때, 어린 두 아들이 돈을 모아 Father's Day 선물로 나에게 Golf Club을 주었는데 이것을 5년 동안이나 만져 보지도 않고 두었던 일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다가 나를 아끼던 후배들의 떠밀림에 못 이겨 60이 거의 다 되어 시작한 골프의 진미를 알고 보니 그때 강제로 나를 끌고 나갔던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울창한 나무사이에서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여러 종류의 새 소리를 들으며 쳐다보는 푸른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에 매료되어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한다. 창조주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 감탄할 뿐이다.

특히 한참 바쁘게 일할 때 여름철엔 office와 병원 일을 끝내고 피곤하지만 몇 홀이라도 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베토벤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는 동안엔 하루 종일 시달리고 쌓였던 stress가 완전 해소되는 감미로운 시간들이였음을 되새겨 본다. 골프는 나의 삶에서 최고의 해독제(Antidote)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살고 있다.

나는 원래 Green Color(초록색)를 좋아 했기 때문에 남달리 골프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다. 봄이 찾아오는 4월에 여행을 하다보면 겹겹이 둘러선 계곡에서 새로 돋아나는 연한 녹색의 새 순들이 마치 계곡의 푸른 안개 모양으로 덥혀 있음을 볼 때 신록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남만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해 준다.

나는 Goethe가 Mailied에서 읊었던 시를 지금도 자주 찾는다. 10년 전 유럽 여행중에 괴테와 쉴러의 동상이 동서 양쪽 끝에 서 있는 비엔나 공원의 부드럽고 훈훈했던 그날의 추억이 어제인양 되 찾아옴을 느낀다. 푸르름은 언제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젊음의 표상이 되어준다. 또 오늘의 큰 과제로 등장한 Green Energy 문제나 세포의 노화방지를 위한 Green Tea 건강식품 개발 등 Green의 중요성은 사회복지와 인류문화 발전에도 필요한 것임을 재인식 하게 된다.

세 번째 G는 Girls(여인) 을 표시 하는데 인생 항로에서 여인의 존재가 잇기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며 인생을 살 맛 나게 해 준다.

고대 중국에 4대 미인이 있었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서시(西施 - 沈魚)는 월나라의 여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강변에 서 있었는데 맑고 투명한 강물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었다. 수중의 물고기들이 그의 미모에 놀라 헤엄치는 것을 잊고 천천히 강바닥에 가라 앉았다는 이야기이다.

한나라의 왕소군(王昭君)은 낙안(落雁)이라고 별명을 받았는데 그는 미모와 재주가 특출하였다. 하루는 집을 떠나 어느 고장으로 불리움을 받아 가는 길에 멀리서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를 보고 고향 생각이 나서 가야금을 연주하자 한 무리의 기러기가 그 소리를 듣고 날개 움직이는 것을 잊고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고 한다.

삼국시대의 초선(貂蟬 - 閉月)은 어느 날 꽃밭에서 달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구름 한 조각이 둥근달을 가리었다. 그녀의 용모는 둥근 만달 같았다고 하며 달도 그녀에게는 비할 길 없어 부끄러움에 구름 뒤로 숨었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널리 화제에 오르는 당 나라의 여인 양귀비(楊貴妃 - 羞花)는 어느 날 꽃밭을 거닐고 있었는데 함수 화(꽃)는 바로 꽃 잎을 말아 올렸다고 하는데 요염한 꽃까지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아름다움을 지녔던 절세미인 이였다고 한다.

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월나라 여인 서시를 본 물고기처럼 그리고 한나라의 왕소군의 가야금 소리에 날개의 움직임을 잊고 땅으로 떨어진 기러기처럼 내 나이를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한다!?.

또 한 가지 Rejuvenation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나에게는 있는데 그것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다. 1955년 공군 군의관으로 처음 미국 유학을 시작 했을 때 USC Medical Center에서 동료 인턴이던 Dr. R. Anderson (1954년 Stanford graduate)의 권유로 개인 구독을 시작한 이래 이곳저곳 전전하면서도 묘하게 53년이 지난 오늘까지 나는 이 구독을 계속하고 있다.

이 Journal의 논문 중에서 특히 Review Article, Medical Progress 논문과 Case Record of MGH(CPC)를 읽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불현듯 진료와 연구활동에 분망하던 옛날의 시절로 나를 옮겨주는듯 함을 느끼면서 혼자 미소 짓기도 한다.

지난 해 3월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총동창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우수한 후배들의 전문적 연구발표를 들으면서 마음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또 거기에서 우리 작은 아들이 다년간 Emory University의 Alzheimer Disease Research의 주임 연구교수로서 획득한 업적을 발표해주는 것을 볼 때 나는 "사나이는 죽지 않는다. Man is Immortal"이라는 낯익은 격언이 내 가슴에 메아리쳐 왔다.

나에게 주어진 길(Unique Path)를 조용한 가운데 정성스럽게 계속 걷고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판단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여자의 힘

이건일(68, 오하이오)

제가 평소에도 많은 여성 운동 선수들, 그중에서도 박세리, 그레이스 박 등 여자 골퍼와 여자 양궁 선수들, 이번에 일본서 우승한 아줌마 부대 핸드볼 선수들이나, 주위에서 가끔 보는 국제결혼한 분들중 남편을 훌륭히 뒷바라지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예들을 많이 보아오며, 우리 나라 여자들의 위력을 항상 느끼고 있었으나, 이 며칠동안 두번이나 한국 여자 이야기가 뉴욕 타임스(NYT)에 기사로 실리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 여성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킴 선네(Kim Sunee) 라는 요리 탐구가겸 작가로 자서전인 "Trail of Crumbs: Hunger, Love and the Search for Home"이라는 책을 이번 1월에 출판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미국 뉴 올린즈 중류 가정에 입양된 한국 고아 출신인 여성의 이야기 입니다. 이름인 킴은 아마도 자기 성에서, 마지막 이름인 선네는 역시 입양된 동생의 이름인 선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1973년 세 살 적에 서울 어느 시장에 엄마가 버리고 사라지는 바람에, 사흘후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미국으로 입양하게 되었고 중류 가정에서 잘 자라 났지만은 '공포감, 배고픔'의 기억에 항상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 안그렇겠습니까? 입양된 가정은 중류, 그러나 자라면서 'with a growing sense of dislocation and restlessness'에 시달렸고 양모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는 주의와 애정이 좀 불안정 했던 모양 입니다. 이 책을 출판 후로는 양모와 대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나이 22살에 프랑스어, 영어, 스웨덴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세상을 잘 아는 박학한 시인이 되어 스톡홀름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언제나 집이 없다는 생각에 시달리다가, 17년 연상인 프랑스인 올리비에 보상(Olivier Baussan)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유명한 자연산 비누와 화장품 판매회사인 록시땅 (L'Occitane)의 창립자였습니다. 6개월후 올리비에의 집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세워진 널따란 프로방스 농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프로방스의 풍물, 요리들에 접하게 되고 "터스카니의 태양 아래에서(Under the Tuscan Sun)"을 쓴 프란시스 메이스(Frances Mayes)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올리비에에 비하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점점 더 자기를 억누르려 하는 하는 태도에 불행함을 느끼게 되자 5년 만에 그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녀 책의 특징은 매 챕터마다 끝에 자신이 여행 했었거나 살아 보았던 한국, 루이지애나, 스웨덴, 프랑스의 요리법에 관한 레서피(Recipe) 를 올려 놓았다는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부모를 찾으려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지금에 와서 보니,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 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결국 나는 살아 남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이 글을 읽던 제가 콧등이 찡하여 졌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과 자기 정체를 알아보고 싶은 갈망 등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군요.

이 책을 읽어 보려고 오늘 아마존(Amazon)에 주문 하였습니다.

이 신문 기사 싸이트: 직접 클릭하시면 NYT에서 로그인 하라고 하니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이고 paste 하여 보십시오.

http://www.nytimes.com/2008/02/20/dining/20crumbs.html/ref=dining

두번째 이야기: An Eco-Friendly Pianist Wears Her Heart on Her Sleeveless Dress

지난 화요일 2 월 19일에 뉴욕시 잔켈 홀 (Zankel Hall)에서 Soyeon Lee 라는 젊은 한국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녀의 연주복 드레스는 6000개의 포도 쥬스통으로 만들어 진 것이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연주회 직전 다른 사람 아닌 영화 배우이자 환경운동가인 대릴 한나(Daryl Hannah)가 소개하였습니다. 이 연주회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 연주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Concert Artists Guild가 쓰레기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TerraCycle Inc. 와 재활용품으로 자기 회사 제품을 포장 판매하는 Honest Tea Inc. 등과 제휴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옷의 디자인은 니나 발렌티(Nina Valenti)가 하였는데 수백명의 미국 초등학교 꼬마들이 수집한 음료수 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연주회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도 후반부에 재생된 작품들로만 꾸몄습니다. 예를 들어, 부소니 (Busoni)의 바흐 (Bach) 작곡 Chaconne in D minor from the Partita for Solo Violin No. 2에 의한 변주곡, 라벨(Ravel)의 La Valse(원래 관현악곡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것), 중국 작곡가 Huang Ruo의 'Divergence: for piano and speaker' (원래는 5명의 연주가를 위한 협주곡을 편곡한 것) 등 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어떠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은 '줄리아드를 졸업하고 몇 번의 경선에 입상한 연주가답게 맑고 정직하고 부드러우나 실속이 있는 연주' 라고 한것을 보아 의상만으로 먹으려드는 연주회는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전통적인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재활용 곡들이 아닌 알베니스 (Albeniz)의 Iberia 와 프로코피에프(Prokofiev)의 Piano Sonata No. 7을 연주 하였습니다.

아주 장하고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이용한 연주복을 입는다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거기에 연주솜씨도 수준 이상이었다니 더 말할것이 있겠습니까?

이 신문기사 싸이트 주소: 직접 클릭 하시면 NYT에서 로그인 하라고 하니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이고 paste 하여 보십시오. www.nytimes.com/2008/02/21/arts/music

우리의 젊이들이 세계 각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고아로 입양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조국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원망도 많이 하였을 것이고 절망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이기고 세계에 우뚝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외롭고 괴로운 일이었겠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공이 더 값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을 따듯한 가슴으로 보듬어 안아야 하겠습니다.

재수 좋은날

김명원(68, 남가주)

한번 읽고 버릴 탐정소설 같은 책들은 구세군 시장의 헌 책방에 가서 사는 재미를 들인지가 오래다.

인터넷 아마존 닷 캄에 들어가서 사도 싸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원가의 절반 값 이상은 주어야 한다.

인터넷 헌 책방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어떤 책은 1 센트에 판다. 그렇지만 운송비가 3불75전이고 꼭 배달된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다니는 구세군 시장 책방에서는 펭귄 북 싸이즈는 모두 59센트다. 그보다 크면 1불 59센트. 문제는 거기에 내가 찾는 책이 다 있는게 아니고 복꼴 복, 재수가 좋아야만 살만한게 걸린다는 거다.

헌 옷가지, 신발, 가구, 레코드 판, 등등 온갖 갖다버릴 잡동사니들을 기부 받아 파는데 책들은 한 벽면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니까 선택의 여지고 뭐고 할게 없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확 끼쳐오는 땀내 덜빠진 세탁물 냄새도 그렇고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밝지 않은 표정도 그렇고 해서 가게에 들어서기가 좀 께름칙하지만 책이나 음반을 모아 놓은 구석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종종 마주 치기도 한다.

오늘도 점심 시간이 좀 일러서 들렀더니 웬일로 내가 좋아하는 Sue Grafton의 알파벳 씨리즈 중의 M, N, O 세 권이 나란히 나와 있었다.

여류 작가인데 책의 제목을 "A is for Alibi", "B is for Burglary"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시리즈'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 여자의 책은 대강 다 읽고 그 세 권을 찾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세 권이 몽땅 걸리다니 이건 웬만한 기적이 아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그중 한 권을 펴들고 읽으며 점심을 시켰다.

우리 동네의 독서광 송창호는 작가가 여자여서 박력이 없더라고 하지만 나는 치고 박는 박력보다 그 여자의 현장감 있는, 일기를 쓰듯 생생한 기록과 인물들의 찰라적인 심리 상태까지 섬세하게 포착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좋아한다.

금방 독서 삼매에 빠져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는데 웨이트레스가 음식이 늦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갔다. 시계를 보니 아마 30분은 지난 것 같았다. 괘씸한 기분이 든 것도 잠시, 다시 책 속으로 빠져 들어 갔는데 매니져가 직접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또 사과를 한다.

"책이 재미있나 보죠?"

"아, 예 그런대로 읽을만 합..."

"읽을꺼리를 가져 오셔서 다행입니다. 음식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웨이트레스가 까먹고 놔 둬서 다 식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다시 해 오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웨이트레스는 주방에서 오더를 빠뜨렸다고 방전 전에 핑계를 댔었다. 아무랬거나. 읽던 책이 궁금해서 서둘러 파스타를 뚝딱 먹어 치우고 났더니 웨이트레스가 다시 와서 사과하며 말했다. 음식이 늦게 나온걸 사과하는 뜻으로 매니져가 돈을 안받기로 했단다.

"허 참, 양놈들... 이렇게 인심 좋게 장사를 해서 무슨 이가 남을까..."

어쨋든 나는 횡재다. 팁까지 하면 보통 18불은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은 아침 화장실에서부터 일이 잘 풀렸다. 힘 안들이고 오랜만에 고봉으로 일을 보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뿐했다. 체중 조절을 열심히 하지만 가끔 왕창 때려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다.

오랜만에 갈비와 냉면으로 포식을 하고 나서 은근히 후환이 두려웠다. 그런데 웬일인지 배가 띵띵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밤 새 속도 편했고 잠도 잘 잤다. 그리곤 아침에 배가 홀쭉해 질 정도로 비워 내고 났더니 포도청에 갔다가 매도 안 맞고 풀려난 기분이었다.

일진이 좋은건지 재수가 좋은건지 이런 식으로만 일이 풀려 나가면 인생은 살만한 거다 하고 만족해 있는데 DC에 사는 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단다. 여자 애를 사귄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었다. 결혼얘기만 꺼내면 미개인을 보듯 묻는 사람을 무안을 주던게 엊그제였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음을 정했는지 모르나 지금 그런걸 따지고 있을 게제가 아니지 않은가.

기분 째진다.

"Really?! Congratulation, when are you."

너무 고치 꼬치 묻다가 심통을 건드려 행여나 마음을 바꿔 먹기라도 할까봐서 대강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 그렇지 제 놈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뻣대, 뻣대기는."

며느리감이 파랑 눈이라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 땅에 뼈를 묻을 몸, 흰둥이 밭에 김씨 가문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훌륭한 명분이 서지 않은가.

오늘같이 일진이 좋은 날에 결혼을 결심 했으니 잘 살거다.

오늘같은 호박이 넝쿨째 떨어지는 날엔 복권을 몇 장 사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전면에서 계속〉 테레사의 말과 뜻이 통하는 것 같다.

흑산도의 홍어는 이름이 나 있다. 홍어는 인천과 군산 앞 바다에서 많이 잡히지만 흑산도 홍어 맛이 제일이란다. 언제 다시 이 곳을 찾겠는가 하여 아내와 함께 홍어회 한 접시를 비우고 왔다. 흑산도 하면 이미자씨의 흑산도 아가씨도 빼 놓을 수 없다. 흑산도를 버스로 관광하는 동안 흑산도 아가씨의 노래를 반주삼아 여러 명승지에 대한 안내자의 설명도 들었다. 총각선생을 사모했던 19살 섬 색시, 육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닷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부두 앞에 좌판을 깔아놓고 해산물을 팔고있는 늙은 해녀도 이중의 하나였을까? 그냥 지나 칠 수 없어 늙은 해녀의 김, 다시마를 팔아주었다.

흑산도 아가씨 노래와 해녀를 뒤로 하며 아쉬운 정을 남겨두고 흑산도를 떠나 목포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으로 낚지 복음밥을 먹은 후 유달산에 올랐다. 산수가 수려한 유달산 중턱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바위 위에 짚을 덮어 군량미처럼 보이게 하여 왜군을 속였다는 노적봉과 충무공 동상이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는 듯 했다.

미지의 세상을 둘러보는 여행은 가슴을 설레게 하며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한다.

눈물과 한과 주먹의 도시였던 목포가 이제 모두를 털어 버리고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시민들의 태도를 피부로 느끼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한 이번 여행의 종착역 '서울행 KTX' 에 몸을 실었다.

측간의 측면

허선행(64, 뉴저지)

인간의 자세 중에서도 가장 보기가 망측한 것은 바로 대변보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옛날 아니면 지금도 한국식 측간에서의 그 모양을 상상해 본다면 말이다.

어려서부터 나의 큰 일중의 하나는 측간을 다녀오는 것이었고 거기다가 하루에 몇 번씩은 갔어야 했으니 그 부담이 무척이나 컸었다.

문외한의 한 사람으로 고려나 이조시대의 변소는 어떻게 생겼고 뒤처리를 했으며 궁중에서의 그 모양이나 구조 그리고 안전도는 어떠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늘 있었지만 아니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깨끗했거나 안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그러했던지는 몰라도 안전과 불쾌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요강문화가 또한 번성했겠지만 시집가는 색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듬직한 요강은 꼭 지참하고 떠나야 했으니 이해는 되지만 그 자체도 그렇게 유쾌한, 아니면 건전한 방법은 물론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 외에도 뒷간은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집근처, 아니면 뒤뜰에 멀지감치 위치해 있었으니 아주 급한 경우나 밤중에는 특히 문제가 많았고, 어린이나 여인들에겐 정말 힘든 일 이었다고 본다.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아도 그 때의 괴로움이 지금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일본 침략후 한국 땅에 새로 건축한 그들의 변소 구조는 대개 실내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온 변소 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보지만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과연 인간의 문명 발상지는 어디였고 우리 역사 5천년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의아해 보면서 이태리 폼페이에는 2천년 전에도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었으니 그 당시의 측간은 측간이 아닌 현대의 수세식 변소 이었을 것으로 또한 판단해 본다.

우리 동양 역사가 햇수로는 더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문명의 발상지로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지금의 이락 지역) 등등의 지역을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것을 보면 로마시대에도 현대와 같은 문명의 이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감탄해 본다.

미국같이 변소 인심이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여행을 떠났기에 가는 곳 마다 변기의 모양이나 구조, 크기 그리고 물탱크의 생김새와 또한 그 크기를 열심히 살펴보니 그들대로의 물을 아끼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었고 때로는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남녀공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기억된다. 그중에서도 역시 잘사는 나라는 측간도 더 깨끗했고 심지어는 남자 변기 사이에도 더 많은 공간과 이중의 칸막이로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디자인도 있었으며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위생시설에 감탄을 보내게 된 곳도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나라, 그 도시의 문명의 지수는 우선 변소칸부터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서양 문명의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극히 즐기는 것 중의 하나는 내가 편안히 앉아 일 볼 수 있는 바로 이들의 측간이다.

농담 골목

술을 그렇게도 좋아하던 그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술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마누라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지 일주일이 지나니 그가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위스키 한 병을 마셨습니다. 밤 늦게 집에 도착한 그는 마누라가 볼까봐 가만히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려 했는데, 기둥에 이마를 부딪쳤습니다. 가만히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이마의 피부가 긁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반창고를 꺼내어 부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누라가 "당신 어제 밤 술을 마셨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하니, 그녀가 "그런데 왜 변소 거울에 반창고가 붙어 있지요?" 라고 했습니다. (면)

술에 몹시 취한 그가 집에 돌아와 마누라와 한바탕 했습니다. 가구들도 몇 개 깨여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마누라는 이미 일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가니 아침 식사가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이상하여 아들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하기를, 전날 밤 어머니가 아버지 옷을 벗기려 하니 아버지가 "나는 마누라가 집에 있어, 옷을 벗을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그것을 들은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듯 하다고 했습니다. (면)

진상규명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칼국수엔 칼이 없다.
빈대떡엔 빈대가 들어있지 않다.
가래떡엔 가래를 넣지 않는다.
곰탕은 곰을 잡아 만든것이 아니다.
소주는 소를 잡아 담근 술 아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은 감을 사주겠다는 말이 말이 아니다.
사과드린다는 말은 사과를 사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덕승)

직업별 거짓말

선생님: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회사원: 예, 다 되 갑니다.
약장수: 이 약 한번 드셔 봐, 팔 다리 어깨 허리 간장 위장 소장 대장이 다 시원해 져요.
연예인: 그냥 선 후배 관계예요.
정치가: 단 한푼도 안받았습니다.
신인배우: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웨딩사진사: 내가 본 신부중에 제일 예쁘네요.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대문 리어커상: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중국음식점 주인: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덕승)

젊은이가 잠을 자다 깨는데, 10%는 목이 말라 깨고, 10%는 오줌을 누러 깨고, 80%는 마누라가 기다리는 집에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권)

Change We Need
(필요하다 갈아보자)

미국 대통령에 역사상 처음으로 오씨가 당선되어 8년 동안 집권한 부씨가 물러난다. Election Results를 다시 정리하면 Lies. Let's Recount 이다.
(오태희)

회비, 헌금하신 동문 명단

2009년 1월 10일 현재

Donation

노용면(55) 500 김익창(56) 100 서상철(56) 25 강상진(59) 200 정태진(59) 25
권기홍(60)1000 장성환(61) 100 황현상(61) 75 조명호(62) 75 임춘수(63)175
왕규현(63) 100 장세곤(63) 200 허선행(64) 200 구경회(65) 125 이한중(65)100
김명선(67) 100 이근웅(67) 100 이건일(68) 100 서관우(68) 75 전덕성(69)100
정한규(69) 100 윤효윤(69) 375 김유식(71) 100 서상헌(71) 75 장 철(71) 75
조경호(72) 50 방병기(73) 125 김자억(75) 100 조철영(75) 125 김동수(78) 75
백승원(79) 500 박범열(81) 125 Total: 5,300

Green Project Fund

김신형(56) 500 최창송(58) 50 박명근(60) 100 이종석(60) 75 한기현(63)100
민발식(66)1 00 이건일(68) 100 차재철(68) 75 최종진(69)100 윤효윤(69)1000
김유식(71) 75 서인석(73) 100 백승원(79) 300 Total: 2,675

Charity Fund

반용균(59) 100 김영기(61) 100 조한원(63) 100 최영자(66) 50 윤효윤(69) 500
최수강(71) 100 백승원(79) 500 Total: 1,1450

Scholarship Fund

Mrs. 송관호 10,000 Mrs. 윤좌병 1,000 Total: 11,000

2009 Annual Convention Donation: 윤효윤(69) 2,000

회비 납부하신 동문 명단

1947 장석주 1948 한용현 오동렬
1949 김지익 고영철 이형모 1950 주 일 한원봉 김헌종 나수섭
1951 최영수 이상하 박준홍 1952 김호연 김정준 김은태 박종식
1953 정약훈 김형건 이상봉 1954 김갑균
1955 박병원 노용면
1956 조동립 도상탁 김익창 김신형 이연찬 박상기 신명수 서상철 유호준 윤신원
1957 정진묵 정구영 정희영 강영섭 김일훈김양호 이민자 이동성 유상환 임종원
오세근 임종식 윤 찬
1958 최병두 최창송 한영수 김부근 김기태 김해암 김백년 김수산 김시한 김윤범
강갑년 이장섭 이동목 이종용 이종국 최정희 이만택 이운순 임영신 배영섭
박호현 박용화 이상설 유치열 신상균
1959 반용균 최대한 최종진 최혜숙 최용천 정병욱 정태진 한성업 한달수 임낙중
강재룡 강상진 김병구 김병석 김교안 김은섭 김용덕 이교락 이원호 박선용
방석운 박형돈 나길진 서경화 심충섭 신한수 신영철
1960 조재동 한성수 김택경 김영환 김영욱 권기홍 이효빈 이종석 이덕숭 이순환
임종원 오신중 박춘명 박명근 송영조 임필순 염극용
1961 안창현 장성환 장태환 조은순 최지원 최공창 최태순 최용성 정철융 황현상
정의철 강세부 김영철 김영기 계훈택 이한수 이회백 이희경 이재두 이재승
박준환 박승균 손기용 서휴열 양명교
1962 장항순 장병호 장순필 정 태 구정율 조명호 정정수 김한종 김호균 김석식
권익현 이상복 이상무 이석우 이용길 남성희 오태요 박찬형 박진수 박종건
이경욱 이영웅 여천기 송영두
1963 장인호 장세곤 조열하 조한원 추재옥 신경호 김태형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강영호 김택수 김충열 김현철 김정일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태웅 김주응
고영희 이재명 이종두 이종민 이기황 이능석 이병준 이숭현 이범세 마동일
노인규 박세록 임춘수 신영규 송용덕 서경석 왕규현 양찬기 윤진수 윤영섭
윤영옥 선우건영
1964 안연승 차응만 조창언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허선행 전희택 조동준 정유석
김태환 김용두 김용국 이재풍 이흥표 이정필 이정은 이길수 이광신 유광현
임병훈 임대북 오덕겸 박한영 박세준 라찬국 이중오 이유찬 유창남 양운택
유 강 윤홍기 선우세현
1965 채무원 채도경 조성구 정길화 전영균 황규정 강길원 구경회 권태해 이범석
이중희 이한중 이한승 이화성 민경탁 문형성 박수안 이재진 이정의 서좌일
손광호
1966 장한교 조충열 조관상 최순채 최영자 정양수 한일성 허서룡 조의열 김충규
김의신 김진호 김진수 김우신 김용재 이종현 이명희 이성근 민발식 남궁승
박웅길 노재선
1967 최무웅 최승웅 한영수 전영성 김동수 김명선 김성철 김태웅 김영곤 경우현
이준식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태안 이영균 문경웅 유진일 육태식
1968 안세현 차재철 홍광신 김희주 김경인 김영남 이건일 임공세 문광재 박정식
노영일 서진석 서관우 서윤석 서영일 송창호 황훈규
1969 안병일 최종일 최종진 전덕성 천양곡 정한규 도상철 김병오 김창남 김중권
김재욱 김홍서 김윤성 이충호 이숭공 임웅규 신영찬 송기인 송용재 서 량
엄규동 윤효윤 변영석
1970 방준재 장극기 조영갑 최원일 조남현 홍 건 김형달 이성춘 문성길 박홍식
노승국 인정길
1971 배성호 장 철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황동하 강창홍 강태수 강유구
김창구 김 훈 김효순 김일영 김유식 김성환 고기영 곽승용 이희영 이남수
이성길 이원택 오동환 오상현 노재홍 서정자 송창기 서상헌
1972 장병호 조경호 최인섭 정진우 정균희 김재석 김광호 이신재 박명영 석창호
1973 방병기 김천일 나두섭 이영복 민인기 문대욱 임준형 서인석 심완섭
1974 최태식 김웅진 권철수 이홍제
1975 조철영 전경배 한 일 김자억 김원정 박인영
1976 한승신 김정아 1977 강준희 박일우 1978 김동수
1979 백승원 1979 이혁엽 1980 박남훈
1981 최선희 박범열 1982 이관희 1983 심인보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원고는 사양하오나 2세들의 영문원고는 환영합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모임날짜 및 장소: 2008년 12월 17일 저녁 6시30분 / 청해진 Flushing, NY
참석자: 노용면 김병석 이희경 허선행 Mrs. 허선행 서인석 이유찬 Mrs. 이유찬 황창근 (불참: 서량)
토의 및 결정사항:

1.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신임 편집위원 이유찬 동문부부를 환영했다.

2. SNUMCAA website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상호 협조하는 구체적제안을 채택했다. Website manager에게 들어오는 모든 essay의 title과 저자의 이름을 시계탑 편집장에게 알리도록. 되도록 시계탑에 원고가 먼저 실렸으면 하는뜻이긴 하나 web에 먼저 실렸다고 해서 시계탑에 안실을 이유는 없다는데 모두 합의했다. 편집장이 일단 web manager와 통화하기로 했다.

3. 시계탑 원고의 부족을 타계하는 한 방법으로 문예현상모집을 하자는 안이 나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예원고가 부족한것이 아니고 동기 및 지부소식원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것은 다시 회장단과 상의 하기로 했다. 영문원고 계제문제를 또 토의 했다. 기존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회의는 9시에 끝났으며 모두 새해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헤어졌다.

* 지면관계상 김갑균, 임낙중, 서량, 이원택 동문의 글은 다음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편집장 김병석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